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위한 指示詞コソア 지도법 연구*

宋 晚 翼**

(e-mail : mesong@hanbat.ac.kr)

目 次

1. 들어가기
 - 1 - 1. 문제 제기
 - 1 - 2. 筆者의 선행 연구
 - 1 - 3. 선행 연구의 종합
 2. 「場」의 狀況別 指示詞コソア 용법의 단계적 지도
 - 2 - 1. 학습항목의 설정
 - 2 - 2. 학습항목의 단계적 지도
 3. 모듈型 教材에 의한 수준별 지도
 - 3 - 1. 教材 작성의 기본이념
 - 3 - 2. 教材의 提示
 - 3 - 3. 教材 取扱上의 유의점
 4. 나오기
-
-

1. 들어가기

1 - 1. 문제 제기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 서로 닮았다고 한다. 특히 語順을 비롯하여, 主語나 述語를 잘 생략하는 것, 단·복수 구분의 애매함, 관계대명사가 없는 것 등은 너무 닮아 거의 병행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類似性에 너무 의존하는 한국인의 안일한 일본어학습 태도에 의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한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한밭대학교 교수 일본어교육학

해 서로의 상이점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 예의 하나가, 指示詞「이그저」와 コソアの 용법 문제이다.

梅田(1982), 田窪(1987)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일본어교사는 “중·상급수준의 일본어학습자도 指示詞コソアの 사용이 이상하다.” 고 자주 말한다. 예를들어 (1. 1)의 ア를 ソ로 한다거나, (1. 2), (1. 3)의 ソ를 ア로 해버린다고 한다.

- (1. 1) A: 昨日のレストラン、よかったですか?
B: ああ、*そのレストランね。本当によかったよ。(宋、1999:121)
- (1. 2) 沖縄から来た女の人のは大きなオートバイ乗るんですよ、大きいですよ、オートバイが大きくて、*あの女の子も大きい。(迫田他、2001:7)
- (1. 3) そうすればお金がなくなるでしょう。*あの時どうしますか。(田窪、1987:106)

또한, 筆者의 일본어지도 경험상, (1. 4)의 ソ는 ソ가 아니고 ア로 고쳐야 한다는 학습자도 많고, (1. 5)의 ア는 있을 수 없는 용법이라는 상급 수준의 학습자도 적지 않다.

- (1. 4) 客: 運転手さん、そのビルの前に停めてください。
運転手: はい、そこですね。
- (1. 5) A: この本、ミラ-さんという人が書いたそうなのですが、どこの人ですか。
B: 君、あの先生を知らないのか。(金水・田窪、1992:115)

‘이런 誤用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筆者는 지금까지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위한 指示詞コソア 연구를 계속해 왔다.

1 - 2. 筆者의 선행 연구

筆者의 그 동안의 指示詞コソア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2 - 1. 指示詞コソア 용법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コソア용법 연구」의 동향과 주요 선행 연구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宋, 2003)

① 현장지시에 있어서, 聴者の ソ와 中距離의 ソ를 연결하는 통일적인 설명 원리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② 文脈指示의 경우, 共有知識說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곤란하다.

③非共有의 아에 대하여, 일방적인 생각의 아 혹은 비난의 아라고 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④現場指示用法과 文脈指示用法과의 統一的인 이론 접근으로서 堀口(1978)의 親近의 그、疎遠의 ソ、親遠의 ア說등이 규정되어 지고 있지만, 聽者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는 통일적인 설명은 설득력을 잃을 염려가 있다.

⑤복수의 指示詞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문맥의 구조나 특징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상으로, 現場指示에서나, 文脈指示에서나 용법의 통일적인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코소아用法 설정의 과제로 한다.

1 - 2 - 2. 指示詞コソア 교육의 현황 파악

한국의 대학에서의 일본어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42종의 일본어교과서(初級용(用)22、中級用16、上級用4種類)에서 文法·文型項目으로서의 코소아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13인의 日本語教師에게 코소아用法을 어떻게 指導하고 있는지도 質問紙調査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宋, 2004)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①코소아의 의미나 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있다.

②現場指示의 中称의 ソ와, 非現場指示의 ソ와 아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③日韓 兩言語의 指示詞コソア와 「이그저」의 類似性에 의존하여 가르치는 경향이 많다.

④코소아用法에 관한 概念規定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1 - 2 - 3. 새로운 指示詞コソア用法 설정

指示詞コソア 용법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근거로, 새로운 指示詞コソア用法 설정의 기본이념 및 용법 모델을 제시하였다.(宋, 1991 等)

(1) 코소아用法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이념에 의한다.

①話者와 지시대상만이 존재하는 「場」에서 행하여지는 코소아행위가 원형적인 것이다.

②자연스런 코소아用法의 인지구조는 원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③「指示詞用法의 連續性」은, 現場指示의 코소아用法이 기본적인 것으로, 이

것이 파생 내지는 추상화되어 非現場指示의 コア用法이 된다.

④코아의 선택은, 「場」의 狀況과의 연관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場」의 狀況別로 コア用法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위의 기본이념에 의거, 새로운 「場」의 狀況別 コア用法 모델을 제시하면 (1. 6)과 같다.

(1. 6) 「場」의 狀況別 コア用法 모델

| 용법의 명칭 | | 지시 대상 | 「場」의 狀況 | 언어 행위 | |
|--------|---------|--|---|---------------------------|-------------------|
| 現場指示 | 独立的現場指示 | 現場에서 知覚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 상대(聽者)가 없음 | 독백 | |
| | 相對的現場指示 | 融合型 | 상 동 | 話者と 聽者が 「우리意識」을 가짐 | 주요, 對話 |
| | | 對立型 | 상 동 | 話者と 聽者が 「대립意識」을 가짐 | 주요, 對話 |
| 非現場指示 | 話題指示 | 独立的話題指示 | 본인의 관념 속의, 話題性 이 있는 經驗的知識·記憶 的인 소재 | 상대(聽者)가 없음 | 독백, 回顧的인 표현 |
| | | 相對的話題指示 | 본인 혹은 상대의 표현 내 용에 있는, 話題性이 있는 經驗的知識·記憶的인 소재 | 상대(聽者)가 소재를 알고 있는가를 고려 | 주요, 對話 |
| | 單純照應指示 | 본인의 經驗的知識·記憶 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文脈 上的 언어적인 소재 | 상대(聽者)가 있음, 혹은 있다고 假定함 | 주요, 對話 、作文 | |

또한 (1. 6)의 6개의 「場」의 狀況의 각각의 세부 용법인 独立的現場指示(코-1、아-1), 相對的現場指示의 融合型(코-2、소-1、아-2), 相對的現場指示의 對立型(코-3、소-2), 独立的話題指示(코-4、소-3、아-3), 相對的話題指示(소-4、아-4), 單純照應指示(코-5, 소-5)에 대한 것도 확인하였다. 각각의 세부 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宋(2002)과 「3 - 2. 教材의 提示」를 참조 바란다.

1 - 2 - 4. 「場」의 狀況別 コア用法과 「이그저」용법과의 異同

새로운 모델인 「場」의 상황별 コア용법과 「이그저」를 대조한 결과, (1. 7)과 같이 유사점도 많지만, 상이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宋, 2003)

④ソ와 ア의 구분의 어려움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⑤独立的指示用法이 相對的指示用法보다 습득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會話에 의한 調査의 경우

被調査者 44名에 대한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에 의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宋, 2004)

①會話의 운용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指示詞コソア를 많이 사용한다.

②被調査者가 사용하고 있는 コソア表現은 거의 대부분이 相對的話題指示와 單純照應指示이다.

③コ와 ソ의 사용에 비하여, ア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④ア의 사용은, 上位그룹 5名(55.6%), 中位그룹 4名(16.0%), 下位그룹 2名(20.0%)이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ア가 오용이다. 「退行이 아닌 退行現象」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1 - 3. 선행 연구의 종합

이상과 같은 필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위한 바람직한 指示詞コソア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방침을 세울 수 있다.

①코소아용법의 습득은 「場」의 狀況別로 생각해야 한다.

②특히 「소와 아」와 「코」의 구분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場」의 狀況別로 단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④선택적 학습의 모듈형 教材가 필요하다.

따라서 以下 본문에서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위한 바람직한 指示詞コソアの 지도법으로서 첫째, 단계적 학습을 중시한 「場」의 狀況別 단계적 지도와 둘째, 선택적 학습을 중시한 모듈형 教材에 의한 수준별 지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2. 「場」의 狀況別 指示詞コソア 용법의 단계적 지도

2 - 1. 學習項目의 설정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場」의 狀況別 단계적 지도의 學習項目을 설정하려고 한다.

(1) 学習項目의 설정은 「場」의 狀況別 コソア用法인 現場指示의 세 가지 用法(独立的現場指示、相對的現場指示의 對立型、相對的現場指示의 融合型)과 非現場指示의 세 가지 用法(單純照應指示、相對的話題指示、独立的的話題指示)에 근거한다.

(2) 한국어의 指示詞 「이그저」와의 共通點을 相違點보다 먼저 제시한다.

(3) コソア文의 종류에는 複合型 コソア文(둘 이상의 「場」의 狀況別 의미용법이 섞여 있는 코소아文)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單純型 코소아文(하나의 「場」의 狀況만의 지시표현)을 학습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易에서 難」의 원칙에 의거하여, 現場指示를 非現場指示보다 먼저 제시한다.

(5) 現場指示의 融合型은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두 개의 학습항목으로 나눈다. 즉, 相對的現場指示의 融合型 I (コ、ア)과 相對的現場指示의 融合型 II (コ、ソ、ア)로 나눈다.

(6) 非現場指示의 相對的話題指示도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두 개의 학습항목으로 나눈다. 즉, 相對的話題指示 I (共有의 ア、非共有의 ソ)과 相對的話題指示 II (共有의 ア、非共有의 ソ、非共有의 ア)로 나눈다.

(7) コソア文의 의미용법중에는 獨白, 중얼거림이라고 하는 「独立的」 지시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對話를 원칙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學習項目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단, 非現場指示의 独立的的話題指示의 ア는 다분히 일상적이며 對話에도 많이 나타나므로 學習項目으로 한다.

(8) 現場、非現場의 각각의 「場」의 狀況別 의미용법 이외에, 관습화·특정화되어 있는 코소아用法¹⁾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以上の (1)~(8)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설정된 지도 단계별 學習項目은 (2. 1)과 같다.

1) 코소아의 관습화·특정화된 용법의 예

- ① 感嘆詞性: これっ(こらっ) ~, それ(そら) ~, あれっ ~
- ② 反復形: これはこれは, それはそれは, そこそこ
- ③ 時を表すもの: この間, そのうち, ~このかた
- ④ 慣用的なもの: 「ア+コ」型: あれこれ, あちらこちら, あちこち, あれやこれ야, ああもうこうもいう, あの手この手, ああだこうだ, ああ言えばこう言う, あ아도こうでもない, あれ도これも 「ソ+コ」型: そうこう, そここ, それ야これ야, そんなこんな, そうこうするうちに, そして
こして,それもこれも
- ⑤ 接統詞:それから,そこで,それでは

(2. 1) 지도 단계별 指示詞コソアの 學習項目

1段階: 相對的現場指示의 對立型 (コ, ソ)

2段階: 相對的現場指示의 融合型 I (コ, ア)

3段階: 相對的現場指示의 融合型 II (コ, ソ, ア)

4段階: 非現場指示의 單純照應指示 (コ, ソ)

5段階: 非現場指示의 相對的話題指示 I (共有ア, 非共有ソ)

6段階: 非現場指示의 獨立的話題指示 (非共有ア)

7段階(발전보충단계): 非現場指示의 相對的話題指示 II (共有ア, 非共有ソ, 非共有ア)

2 - 2. 學習項目의 단계적 지도

2 - 2 - 1. 現場指示用法의 지도

(1) 1~3段階의 現場指示는 초급과정 내에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3段階인 融合型 II의 中称의 「ソ」의 제시 및 지도는 실러버스 디자인에 따라서는 중급과정에서도 가능하다. (「3 - 2. 教材의 提示」의 (모듈3) 참조) 왜냐하면 中称의 「ソ」는 「이그저」의 용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용법일 뿐 아니라, 초급단계에서는 별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규격화된 지시표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른 제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1, 2段階의 습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現場指示의 融合型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話者と 聽者)로부터 가까운 지시대상은 코, 먼 지시대상은 아로 가리킨다’고 지도한다. 그것이 정착된 후에, ‘실은 그 중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지시대상은 ソ로 가리킬 수 있다’고 하며 일상적인 실제 예문들을 제시하며 지도하여 이해를 돕는다.

(2) 現場指示의 1, 2段階의 「これ・それ・あれ」 「この・その・あの」 「ここ・そこ・あそこ」 등은 대개 「~は~です」라든지 「~に~があります、~に~がいます」, 「~は~ほど~です、~は~より~です」 같은 문형 학습 시에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때, 1段階와 2段階의 「場」의 狀況을 구분하지 않고, ‘코는 話者에게 가까운 지시대상, ソ는 話者로부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지시대상, 아는 話者로부터 멀리 있는 지시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2. 2)와 같이, 조금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는 對話 相対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로 가리키는 오용 현상이 실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2. 2) (AとBがテーブルを挟んで5メートルぐらい離れて向かい合って座っている。

AがBに話しかける。) あなたの手元にある*あれは何ですか?

이와 같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段階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유효하다. 요컨데 現場指示를 対立型和 融合型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용법 자체가 원래 다른 「場」의 狀況이라는 것과 오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順序性 확보 때문이다.

(3) 順序性에 있어서, 現場指示의 対立型이 融合型보다 왜 먼저인가 하면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話者の 영역의 그와 相手の 영역의 ヽ라는 対立型的 「場」은, 초급단계의 학습자에게는 교실 활동 중에 쉽게 연습 및 모의 회화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易에서 難」의 원칙에 의거할 때, 融合型에서는 「中称의 ヽ」라는 한국인학습자에게는 낯선 용법이 있는 것에 반해, 対立型은 한국어의 「이그저」와 그대로 대응하고 있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용법 습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 - 2 - 2. 非現場指示用法의 지도

(1) 現場指示用法 학습 후에, 非現場指示用法 지도를 시작한다. (단, 3段階인 現場指示의 融合型Ⅱ는 非現場指示用法과 시기적으로 병행하여 지도해도 괜찮음.) 대략 초급후반이나 중급과정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다.

(2) 非現場指示用法의 습득 문제는 「ヾ와 ア의 区分」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의 자연스런 コソア행위의 인지구조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場」의 狀況別 용법을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먼저, ア가 나타나지 않는 「場」의 狀況인 單純照応指示의 用法 학습부터 시작한다.(「3 - 2. 教材의 提示」의 (모쭙4) 참조) 통상 ヽ가 많이 사용되지만, 話者(筆者)가 제시한 내용에는 그가 가능하고, 聽者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ヽ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相對的話題指示用法을 학습한다.(「3 - 2. 教材의 提示」의 (모쭙5) 참조) 여기에서는 앞서 학습한 學習項目인 單純照応指示와는 다른 「場」의 狀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單純照応指示는 단순한 一般的事實이나 假定・予想的인 것이나 同一性 強調를 가리키는 「場」의 狀況에서 행해지는 지시행위인데 비하여, 相對的話題指示는 話者と 聽者の 개인적인 話題性이 있는 知識・經驗과 관계가 있는 「場」의 狀況에서 행하여지는 지시행위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게 한다.

(4) 非現場指示用法들 중에서 單純照応指示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單純照応指示用法은 「이그저」와 그대로 대응하고 있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용법 습득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非現場指示의 相對的話題指示와 獨立的話題指示는 연속성을 가진 같은 話題指

시그roup이기 때문에, 單純照應指示用法的 학습 다음에, 연속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4段階의 單純照應指示와 5段階의 相對的話題指示用法的 학습이 끝난 다음에, 6段階의 獨立的話題指示用法的 학습에 들어간다. (「3 - 2. 教材의 提示」의 (모듈6) 참조) 이 때, 반드시 相對的話題指示의 「場」의 狀況과의 差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 즉, 獨立的話題指示는, 聽者가 존재하는 相對的話題指示와 달리, 「場」의 狀況에는 聽者가 존재하지 않는 독백이나 중얼거림이나 回想的인 표현에 의한 지시행위인 것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특히 친숙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일상적인 例文들의 제시와 함께, 相對的話題指示의 「場」의 狀況에서의 「非共有의 ソ」가 獨立的話題指示의 「場」의 狀況에서는 「非共有의 ア」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2 - 2 - 3. 非現場指示用法的 발전 보충 단계의 지도

(1) 以上の 1~6段階로서 指示詞コソアの 단계적 지도가 일단 끝나게 되나 コソアの 文法性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상급이상의 학습자에게는 발전 보충 단계로서 7段階의 相對的話題指示Ⅱ를 제시할 수도 있다. (「3 - 2. 教材의 提示」의 (모듈7) 참조) 결국 相對的話題指示 학습은 二段階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5段階의 相對的話題指示Ⅰ에서는 「(2. 3) 相對的話題指示Ⅰ」과 같이 「共有의 ア」와 「非共有의 ソ」의 용법의 습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相對的話題指示의 용법에는 相對的話題指示Ⅰ 이외에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2. 4) 相對的話題指示Ⅱ」와 같은 용법의 지시행위도 있기 때문에 발전 보충 단계로서 學習項目化하고 있는 것이다.

(2) 相對的話題指示Ⅱ의 지도는, 반드시 相對的話題指示Ⅰ을 충분히 습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은 相對的話題指示 용법에는 「非共有의 ソ」뿐만이 아니고 「非共有의 ア」라고 하는 用法도 있다’고 하면서, 「(2. 4) 相對的話題指示Ⅱ」와 일상적인 例文들을 활용하면서 이해를 돕는다. 결국 「非共有의 ア」는, 聽者(相手)를 배려하지 않는 話者 중심의 지시표현으로, 정중함이 부족하고 독백적인 성향이 있는 지시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3) 相對的話題指示 I

| | | 話者 | |
|----|----|----|----|
| | | 既知 | 未知 |
| 聽者 | 既知 | ア | ソ |
| | 未知 | ソ | ソ |

(2. 4) 相對的話題指示 II

| | | 話者 | |
|----|----|-----------------------------|----|
| | | 既知 | 未知 |
| 聽者 | 既知 | ア | ソ |
| | 未知 | 話者 중심 ;ア、 聽者 배려 ;ソ | ソ |

3. 모질型 教材에 의한 수준별 지도

3 - 1. 教材 작성의 기본이념

모질型 教材란, 教材의 각 单元이 각각 완결되어 있어, 각각의 单元들을 어떠한 순서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는 형식의 教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单元을 필요한 시기에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모질型 教材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수준 그리고 학습 과정의 필요성에 맞추어 適時에 學習事項을 선택,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융통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文法項目으로서의 コソア用法의 습득에 이러한 모질型 教材를 도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 하나의 개념 규정으로 정리되지 않는 コソア用法의 인지구조에는 「場」의 狀況에 따른 여러 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 「場」의 狀況別 용법을 각각의 學習項目으로 해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같은 수준 혹은 다른 수준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일본어 학습자라 하더라도 コソア用法의 습득 정도가 반드시 학습 수준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선행 연구 결과(宋, 2002)를 생각해 보았을 때, 능률적으로 コソア用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상응하는 學習項目을 適時에 선택하여, コソア用法의 습득 수준에 맞추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3 - 2. 教材의 提示

指示詞コソア用法의 습득을 위한 모질型 教材는, 하나의 學習項目을 하나의

단위 모듈로 하여, 전체가 7개의 모듈로 된다. 그리고 각각의 모듈은 다이어로그, 용법 설명, 모델 표현, 연습의 順으로 구성된다.

이하, 한정된 紙面 사정상 教材의 일부만을 소개한다.

(모듈 1) 現場指示의 対立型(コ、ソ)

1. A: 写真を撮りますからそこにいてください。
 B: はい、ここでいいですか。
 2. 医者: (患者のお腹を触りながら) ここがいたい?
 患者: はい、そこがいたいんです。

<용법 설명>

現場指示의 対立型의 コ: 話者と 聴者が 대립하고 있는 現場의 「場」의 状況에서 相手(聴者)의 영역이 아니고 본인(話者)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되는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現場指示의 対立型의 ソ: 話者と 聴자가 대립하고 있는 現場의 「場」의 状況에서 본인(話者)의 영역이 아니고 相手(聴者)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되는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모델 표현>

1. (電話での会話)

A: もしもし、今東京駅にいますが、雨が降ってきたので、傘を持ってここまで迎えに来てください。

B: わかりました。あと10分ぐらいしたら、そこに着くと思います。

2. くすぐったい

李: 佐藤さん、背中がかゆいんですか。

佐藤: ええ、かゆくてたまらないんです。李さん、ちょっと背中かいてもらえますか。

李: ええ、いいですよ。この辺ですか。

佐藤: もう少し左のほう。あああ、そこです。李さん、くすぐるのやめてください。

李: くすぐったいんですか。

佐藤: ええ。

(이하 생략)

<연습>

1. (美容院で)

店の人: どれくらい切りましょうか。

客: ちょっと短めにしてください。

店の人: これくらいですか。

客: ええ、()くらいにしてください。

2. (病院で)

医者: どこが痛いですか。ここですか。

患者: いえ、もう少し上です。

医者: じゃ、ここですか。

患者: ええ、()です。

(이하 생략)

(모듈 2) 現場指示의 融合型 I (코, 아)

(道で二人が話し合う)

佐藤: 李さん、この辺にコンビニはありますか。

李: コンビニですか。あそこにガソリンスタンドがありますね。

佐藤: ええ。

李: あの向かい側にありますよ。

佐藤: 向かい側? 向かい側は銀行ですけど。

李: ああ、間違えました。向こう側です。私、向かい側と向こう側、いつもまちがえるんです。

<용법 설명>

現場指示의 融合型의 코: 우리(話者と 聴者)가 一体化(融合)하고 있는 현장의 「場」의 状況에서 우리(話者と 聴者) 근처에 있는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現場指示의 融合型의 아: 우리(話者と 聴者)가 一体化(融合)하고 있는 현장의 「場」의 状況에서 우리(話者と 聴者)로부터 멀리 있는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모델 표현>

1. こっち、こちら、ここ

鈴木: 朴さん、ごみはちゃんと分けて捨ててくださいね。

朴: でも、どう分けたいかわからないんです。

鈴木: 空き缶、空き瓶はこっち、紙屑はこっちに捨ててください。

朴: タバコの吸い殻は?

鈴木: タバコの吸い殻は、こちらに捨ててください。それから生ごみはここです。

2. (空を飛んでいる飛行機を指差しながら)

子: あれが飛行機なの? 母: そうよ、あれが飛行機だよ。

(이하 생략)

<연습>

1. (部屋の中でいっしょに3~4m前のテレビを見ながら)

母: この人、誰?

子: ()人を知らないのか。イチロウさんだよ。

2. あの先生

李: あの先生今日は何だか機嫌がよさそうですね。

佐藤: ああ、()先生昨日、宝くじが当たったそうですよ。

李: 道理でさっきからニコニコしていると思った。

佐藤: 李さんは宝くじ、当た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李: いいえ、私、くじ運がないんです。()先生のように当たってニコニコしたことは一回もありません。

佐藤: 僕も同じです。いつもはずればかりですから。

(이하 생략)

(모출 3) 現場指示의 融合型 II (코, ソ, 아)

1. 李: ずいぶん日が短くなりましたね。

岡田: そうですね。もう秋がそこまできたって感じですね。

李: 日本は韓国より東にあるので、日の出も日の入りも早いですね。

岡田: ええ、東京とソウルでは、一時間ぐらい差があると思います。

2. A: お出掛けですか。

B: はい、ちょっと そこまで行ってまいります。

<용법 설명>

現場指示의 融合型의 ソ: 우리(話者와 聽者)가 一体化(融合)하고 있는 현장의 「場」의 狀況에서 우리(話者와 聽者)로부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지시 대상을 가리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모델 표현>

1. (タクシーに乗っているお客が10メートルぐらいの前に停めてほしいと思って)

客: そこの煉瓦の建物の前に停めてください。

運転手: はい、そこの角のところですね。

2. A: ちょっと俺の眼鏡を取ってくれないか。

B: どこにあるの。

A: どこかその辺にあるだろう。(正保、1981:73)

(이하 생략)

<연습>

1. (交通安全の標語)

あわてるな、横断歩道は()にある。

2. A: ちょっとそこまで散歩して来よう。

B: どこまで。

A: ()の公園の辺りだよ。

(이하 생략)

(모듈 4) 非現場指示의 單純照応指示(コ、ソ)

- | |
|---|
| <p>1. 消費税をめぐる論議がテレビ、新聞で盛んに行われているが、<u>その(この)</u>論議は平行線のままで、何の实りもない。</p> <p>2. 日本国民たる要件は、法律で<u>これ</u>を決める。</p> <p>3. もし適当な候補者が見つかったら、<u>その</u>人の名前を知らせてください。</p> <p>4. そうすればお金がなくなるでしょう。<u>その</u>時どうしますか。</p> <p>5. <u>これは</u>だれにも言わないでほしいのですが、私は実は猫が怖いのです。</p> |
|---|

<용법 설명>

單純照応指示의 ソ: 지시되는 대상은 話者 혹은 聽者の 經驗的知識・記憶과는 관계가 없는 先行詞로 假定된 일, 予想된 일 또는 일반적인 사항을 태연하게 가리키고 싶다고 할 때 사용한다.

單純照応指示의 コ: 지시되는 대상은 話者 혹은 聽者の 經驗的知識・記憶과는 관계가 없는 先行詞로 假定된 일, 予想된 일 또는 일반적인 사항을 「明瞭한 存在」로서 대상화하여, 「現場指示的」으로 생생히 가리키고 싶다고 할 때 사용한다. コ가 사용될 때는 ソ와 교체 可能的한 경우가 많지만, コ의 後方照応의 경우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문장 중에 인용으로서 제시된 문이나 사진, 그림 등을 직접 가리키는 경우도 コ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델 표현>

1. 太郎は花子にプレゼントを渡そうとした。しかし、花子はそれを受け取らなかった。
2. …もちろん、あらゆるものから何かを学び取ろうとする姿勢を持ち続ける限り、年老いることはそれほどの苦痛ではない。これは一般論だ。… (村上春樹『風の歌を聴け』冒頭)
(이하 생략)

<연습>

1. A: 花子の子供は花子じゃないのに、人間の子供は人間だよ。

B: ()はおもしろいね。

2. 素敵な人が現れたら、()時結婚するわ。

3. 事件を起こした()張本人が知らん顔をしている。
 4. ここは女の子の部屋だよ。()ことを忘れるな。
 (이하 생략)

(모출 5) 非現場指示用法의 相對的話題指示 I (共有A、非共有ソ)

| |
|--|
| <p>1. A: 山田先生を尊敬していらっしゃるそうですね。 B: はい、私も<u>あ</u>のような立派な研究者になればと思って努力しています。</p> <p>2. A: <u>あ</u>の件はどうなっていますか。 B: ああ、<u>あれ</u>は計画通りにうまく進んでますよ。</p> |
|--|

<용법 설명>

相對的話題指示 I 의 共有의 A: 지시되는 대상은 話者 혹은 聽者의 經驗的知識·記憶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소재로, 그것을 話者が 언급한다든지 聽者が 확인한다든지 할 때 사용한다. 이 때의 A를 相對的話題指示의 「共有의 A」라고 한다.

相對的話題指示 I 의 非共有의 ソ: 지시되는 대상은 話者나 聽者 중 어느 한 쪽 혹은 어느 쪽도 아닌 經驗的知識이나 記憶의 소재로, 그것을 정중하게 話者が 언급한다든지 聽者が 확인한다든지 할 때 사용한다. 이 때의 ソ를 相對的話題指示의 「非共有의 ソ」라고 한다.

<모델 표현>

1. A: 私が鈴子と離れたのはもう5年前ですよ。
 B: うん、そうね、あの頃はみんな若かったねえ。
2. 思い出のレストラン
 母: 六本木のどこで食事をしたの?
 良子: 銀河亭っていう古くて素敵なレストランよ。
 母: あら、銀河亭? 知っているわ。昔は父さんによく連れて行ってもらったのよ。
 ねえ、お父さん、覚えていますか、あの店。
 父: うんうん、あそこへはよく行ったなあ。あの頃は西洋料理の店が今よりずっと少なかったから、いつも込んでいたね。
 良子: 今日も満員だったわ。あの店は狭いから…。
 弟: 僕もその店へ行ってみたいなあ。どんなところなの、そこ。
 父: そこはね、最近のレストランとは少し違うんだよ。クラシックな感じなんだ。
 良子: 今度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しょう。 (文化初級日本語Ⅱ、1991:64)
 (이하 생략)

<연습>

1. A: 昨日金君にあった。あの人はずいぶん変わった人だね。
B: ()は変人ですよ。
2. クイズの本
A: クリスマス会のプレゼント、もう買った?
B: いや、それがまだなんだ。
A: ぼく、もう買ったよ。クイズの本、買った。
B: ()本どこで買ったの?
A: 駅の近くに、新しい本屋ができたんだ。漫画もあるよ。学校が終わってから、()本屋に行ってみよう。
(이하 생략)

(모줄 6) 非現場指示用法의 独立的話題指示 (非共有ア)

1. (日記で)
きのう生協で可愛い女の子がレジをしていた。あの子は何年生だろうか。もう彼氏はいるのだろうか。あしたは話しかけてみよう。
2. (昨日食べたフランス料理の味が忘れなくて、一人でつぶやく)
あの料理はうまかったなあ。

<용법 설명>

独立的話題指示의 非共有의 ア: 聽者が 없는 「場」의 狀況에 있어서 지시되는 대상이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話者の 經驗的知識이나 記憶의 소재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 때의 ア를 独立的話題指示의 「非共有의 ア」라고 한다.

<모델 표현>

1. A: 今朝駅前で事故があったんだ。 あの様子じゃ運転手も怪我したんじゃないかな。
B: あ、そう。
2. (自分の母の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
日本に来てから考えたら、 あんないいお母さんいなかったと思う。(迫田、1996:8)
(이하 생략)

<연습>

1. A: バスの中で素敵な人にあったわよ。
B: ふふん。
A: ()人にもう一度会えないかしら。
(『現代日本語コース中級Ⅱ』、1989:235)

2. 先週神田で火事があった、()火事で学生が二人死んだのか。(黒田、1979:54)
(이하 생략)

(모출 7) 非現場指示用法의 相對的話題指示 II (共有A、非共有ソ、非共有A)

1. A: 強盜に襲われたときはどんな気持でしたか。
B: いやー, あの時は、ただもう怖くてね、声も出なかったね。
2. A: この本、ミラーという人が書いたそうなんですが、どこの人ですか。
B: 君、あの先生を知らないのか? (金水・田窪編、1992:172)

<용법 설명>

相對的話題指示 II의 非共有의 A: 지시되는 대상이 話者と 聽者 중에서 話者の 일방적인 經驗的知識이나 記憶의 소재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것을 正證 함이 없이 話者が 언급할 때 사용한다. 이 때의 A를 相對的話題指示의 「非共有 의 A」이라고 한다.

<모델 표현>

1. 総務課に山田っていう人がいるから、あの人に聞いてみたら? (迫田、1996: 50)
2. ぼくは大阪で山田太郎という先生に教わったんだけど、君もあの先生につくといいよ。
(黒田、1979:55)

<연습>

1. 総務課に山田っていう人がいるんだけど、()人、ギターが上手でね、ときどき小さい喫茶店でコンサートを開くのよ。(迫田、1996:50)

2. 友だちの話

女性A: ちょっと、最近誰かと付き合っているんだって?

女性B: そうなの。先月から付き合いはじめたんだけど、()人ったら、付き合ってから一ヶ月も立たないのに、もう亭主気取りなのよ。嫌になっちゃう。

女性A: …じゃあ、別れれば。

女性B: でも、()人、やさしいところもたくさんあるのよ。

女性A: …そりゃ、よかった。

女性B: なんか、私に冷たくない?

女性A: べつに。

(이하 생략)

3 - 3. 教材 取扱上の 유의점

모출型 教材의 取扱上の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コソア用法的 습득 수준에 맞는 學習項目(單元 모듈)을 자유롭게 선택한 다음, 학습자의 일본어능력을 고려하여 각 單元 모듈 내의 필요한 적당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2) 각 單元 모듈의 「용법 설명」에 대한 언급은 가능한 한 수업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사 언급을 할 수 밖에 없더라도, 가급적 단순하고 쉽게 해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용법 설명」에 너무 구애받으면, 운용의 습득이 쉽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コソア用法을 바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コソア 學習項目의 단계별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學習項目을 다음과 같이 학습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전체적인 지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I 段階(初級前期): 모듈1 ~ 모듈2

II 段階(初級後期~中級): 모듈3 ~ 모듈6

III 段階(上級以上): 모듈7

(4) I·II 段階에서는 이 教材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未習文型·新出語彙등의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당한 부분만을 抜取하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

(5) III 段階의 相對的話題指示의 非共有의 ㄱ는, I·II 段階의 學習項目과는 달리, 話者の 지시의도의 개별성이 특별히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 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I·II 段階의 습득 후의 상급이상의 학습 수준 단계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コソア用法的 체계적인 습득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4. 나오기

本 研究에서는, 筆者의 지금까지의 指示詞コソア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コソア用法的 「場」의 狀況別 단계적 지도법과 모듈型 教材에 의한 수준별 지도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コソア用法的 지도에 있어서는, ‘학습 수준별 7개의 學習項目 및 모듈에 의한 단계적·수준별 지도’라는 전체 체계 안에서, 「ソ와 ㄱ」의 용법 습득과 관련한 相對的話題指示와 單純照應指示의 구분 지도, 「非共有의 ソ」

와 「非共有의 ア」와 「共有의 ア」와의 相互性과 관련된 相對的話題指示의 두 가지 종류의 지도, 「対称의 ヲ」와 비교된 「中称의 ヲ」 용법에 관한 相對的現場指示 融合型의 2 단계 지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 제시한 지도법은 실제 지도 효과를 검증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아님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실 지도를 통한 실험교육을 실시하여 본 지도법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으로, 학습자의 일본어능력이 균등한 2학급을 선정하여, 지도법을 적용하는 학급(실험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비적용 학급)의 コソア用法의 습득 상황의 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書面에 의한 選択肢 테스트의 부적절한 조건 통제와 OPI에 의한 會話能力 調査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였다. 어려운 작업임을 통감했다. 향후, 실험 학급과 비적용 학급의 조건 통제와 적절성 유지의 극대화를 통한 검증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梅田博之(1982)「朝鮮語の指示詞」『講座日本語学12 外国語との対照Ⅲ』明治書院、pp.173-184
- 金水敏 田窪行則編(1992)『指示詞』 ひつじ書房
- 黒田成幸(1979)「(コ)・ソ・アについて」『林栄一教授還暦記念論文集・英語と日本語と』くろしお出版、pp.41-59
- 迫田久美子(1993)「日本人学習者と日本人児童による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 -穴埋めテストの調査結果に基づいて-」『広島大学教育学部紀要』第二部42号、広島大学教育学部、pp.191-206
- 迫田久美子(1996)「日本語の指示詞ソとアの使い分けに係わる聴き手配慮について」『細田和雅先生退官記念論文集 日本語の教育と研究』溪水社、pp.39-52
- 迫田久美子他(2001)『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大修館書店、pp.25-43
- 迫田久美子(2002)『日本語教育に生かす 第二言語習得研究』アルク
- 宋晚翼(1991)「日本語教育のための日韓指示詞の対照研究」『日本語教育』75号、日本語教育学会、pp.136-152
- 宋晚翼(1997)「現場指示のソとアの使い分けについて」『日本文化学報』第4輯、韓国日本文化学会、pp.137-154
- 宋晚翼(1999)「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비현장 지시 소와アの 지도」『日本語文学』第7輯、日本語文学会、pp.111-128
- 宋晚翼(2000)「コの文法性を中心としたコソアに関する研究」『日本語学研究』第2輯、韓国日本語学会、pp.143-155
- 宋晚翼(2002)「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指示詞コソアの習得研究 - 設問紙テストの調査結果に基づいて -」『日本文化学報』第13輯、韓国日本文化学会、pp.7-25
- 宋晚翼(2003)『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に対する指示詞コソア習得の研究』博士学位論文、広島大学
- 宋晚翼(2004)「指示詞コソアの指導の現状と運用能力調査 - 韓国における日本語学習者を対象にして -」『日本文化学報』第18輯、韓国日本文化学会
- 田窪行則(1987)「誤用分析1」『日本語学』6-4、明治書院、pp.104-107
- 堀口和吉(1978)「指示語『コ・ソ・ア』考」『論集日本文学日本語5.現代』角川書店、pp.137-158

(教科書)

現代日本語コース中級Ⅱ(1989) 名古屋大学出版会

文化初級日本語Ⅱ(1991) 文化外国語専門学校、凡人社

要 旨

本論文では、筆者の今までの指示詞コソアに関する先行研究結果を踏まえて、コソア用法の「場」の状況別段階的指導法とモジュール型教材による水準別・選択的指導法を提示した。その結果、学習レベル別七つの学習項目の段階的な取り扱い、ソとアの使い分けに関連した相対的话题指示と単純照応指示の区分、「非共有のソ」と「非共有のア」と「共有のア」の相互性に関連した相対的话题指示の2種類の指導、「対称のソ」と比較される「中称のソ」の使い方を中心とした相対的現場指示の融合型の2ステップの指導等が重要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しかしながら、本研究で示した指導法を以って、実際の指導の効果を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ある。

キーワード : 現場指示の三つの「場」の状況、非現場指示の三つの「場」の状況、六つの「場」の状況別コソア用法、指示詞コソアの7段階の指導、モジュール型教材の水準別・選択的指導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